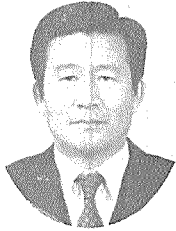


# 最近 國際原油市場의 動向과 展望



金 振 模

(動力資源部·原油課長)

## I. 序言

國際 原油市場의 特性은 全世界 原油의 可採年數가 約 30年에 不過하여 供給에 有限性이 있으며, 供給地域이 一部 地域에 偏重되어 있고, 또한 主된 供給地域인 中東에 不安要因이 尙存해 있다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表-1 參照).

특히 국제 原油市場은 市場 經濟原理에 依해서 만이 아니라, 經濟外的인 要因, 즉 政治·宗敎·軍事·地理學的인 位置 등이 變수로 얽혀 複合的으로 作用하고 있다. 이러한 複雜多岐한 국제 원유시장을 高찰, 전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예측불허한 것인지를 잘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表-2>를 例로 들 수 있다. 이 表는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

operation and Development)가 1977年과 1982年에 전망한 1985年의 자유세계 석유수급 전망으로 무려 약20% 정도 의 오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국제 原油市場의 變化를 잘 나타내

<表-2> OECD의 전망년도별 1985 자유세계 석유수급 (단위: 백만B/D)

구 분	77	82
需 要	60.9	48-50
OECD	50.5	35-36
OPEC	4.2	4
非OPEC개도국	6.2	9-10
供 給	62.5	46-50
OECD	15.4	15
OPEC	39.5	23-26
非 "	7.6	8-9

<表-1> 自由世界의 中東依存度

지 역 별	매 장 량 (백만B) '82.1현재	生 産 量(천 B/D)			輸 出 量 (천B/D) 80년실적	가채년수(년) 82매장량 81생산량
		80실적	81실적	82(1~8)		
中東(P.G지역)	360,669 (61.7%)	18,197 (40.4%)	15,055 (36.4%)	12,214 (29.8%)	15,938 (62.7%)	66
非 中 東	224,195 (39.3%)	26,897 (59.6%)	26,286 (63.6%)	28,757 (70.2%)	9,487 (37.3%)	23
自 由 世 界	584,864 (100.0%)	45,094 (100.0%)	41,341 (100.0%)	40,971 (100.0%)	25,425 (100.0%)	38

<註> 중동은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U. A. E, 오만, 카타르임.

고 있다.

上記 국제 原油市場의 변화와 特性을 考慮하여 볼때, 이를 予測하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나, 본고에서는 最近의 原油市場 動向과 내년도의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고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간략히 언급 하고자 한다.

## II. 최근의 원유시장 동향 및 전망

### 1. 需給

今年度 自由世界 需給은 2次 오일쇼크이후 급격한 油價引上和 美國의 高金利 政策으로 인한 경기회복의 지연, 에너지 소비절약 및 代替 에너지 開發 利用 擴大로 石油需要가 감소하고, 또한 高金利, 油價引上 可能性의 稀薄, 市場의 安定勢 지속展望으로 인한 心理的 要因의 作用으로 主要石油会社의 在庫 放出로 지난 3月19日 제63次 OPEC 총회에서 OPEC의 대폭적인 生産量 감산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 狀態를 나타내고 있으며, 83년에도 今年과 마찬가지로 自由世界 全体의 石油需給 事情은 基調的으로 供給과잉 狀態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① 石油需要는 '79年 이후 減少勢를 持續하여 82년에는 前年對比 約4%減少한 45.4百萬 B/D로 예상되며, OECD 先進國은 '79年 이후 年平均 約 6.5%감소를, 반면에 개도국은 '73~'79年 平均增加率 5.1%에는 미달하나 約 1.8%의 增加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83에는 실질價格의 下落에도 不拘하고, 에너지 利用合理化 및 脫石油 政策(石炭, 原子力, 가스等) 으로 경기가 回復 2.5~3.5%의 經濟成長을 보이는 경우에도 82년보다 多少 增加 되는 것으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계 經濟의 回復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石油需要의 增加는 기대하기 어렵다.

② 石油在庫의 放出은 2차 오일쇼크 직후 공급혼란과 가격引上에 對比 1980년에는 約55億 배럴의 기록적으로 높은 在庫를 維持하게 되었으나, '79年 이후 계속되는 석유수요의 감퇴, 81

年 11月の 油價單一化 및 高金利로 인하여 높은 在庫 維持費用, 實質價格의 下落展望으로 今年 1/4分期에는 約3.8百萬 B/D, 2/4分期에는 2.6百萬 B/D, 3/4分期에도 正常的으로는 겨울철 수요에 대비, 在庫 充當을 하여야 하는 시기이나 0.7百萬 B/D의 在庫 방출이 있었고, 4/4 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年末 在庫는 約47億 배럴로 80年에 比해서는 約 8億 배럴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83년에는 精油社는 높은 在庫비용을 理由로 가급적 在庫를 最低水準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비축을 考慮할 때 多少 增加할 것으로 전망된다(表-3 參照).

(表-3) 在庫 변동 추이 및 전망

구분 \ 年 度	1979	1980	1981	1982	1983
○ 在庫 방출 (백만 B/D)	△ 1.1	△ 1.8	0.5	1.5	△ 0.4
○ 在庫 물량 (백만 배럴)	5,150	5,460	5,250	4,675	4,805
지속일수(일)	97	108	109	97	98

(자료) : DOE, Sept. 15, 1982

③ 石油供給은 石油需要의 減退, 在庫放出로 共產圈에서의 輸入을 勘案하면 82년에는 42.7백만 B/D수준으로 予測되며, 특히 OPEC은 非 OPEC의 油價引下로 인한 販賣增加로 지난 82年 3月 19日 제63次 OPEC 회의에서의 생산 상한선(1,750만 B/D) 합의 등 2/4分期에는 17백만 B/D를 기록, OPEC 결성 이후 최대의 난국에 처해 있으며 무려 年平均으로는 '79對比 무려 37% 감소한 20백만 B/D 水準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1983년에는 石油 在庫 放出의 中斷으로 非 OPEC의 增産을 감안하더라도 82년보다는 多少 增加한 約 21.5백만 B/D로 展望되고 있다.

### 2. 價格

今年度 原油價格은 81年 10月 29日 제61차 OPEC 총회에서 油價單一化 合意 이후 油種間 가격 差에 대한 産油國間에 異見이 있으나 基準油價 34 \$/B 體制를 維持하고 있으며, 1983년에도 同

목가격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란-이라크 戰의 전쟁위험이 없고, 다른 공급 혼란이 없으면 명목가격이 하락할 확률은 더욱 증대 될 것으로 보인다.

가. OPEC의 분열

OPEC은 81年 10月29日 제61차 OPEC총회에서 석유수요의 감퇴, 在庫放出로 79年 2차 오일쇼크이후 32~41\$/B까지 多元化 되어 있던 油價가 34~38\$/B로 油價單一化를 合意한 후 B-C油 및 나프타 價格의 下落으로 82年 1月1日 부터 페르샤灣 中·重質油 價格의 0.2~0.7\$/B引下와 價格 상한선이 37\$/B로 축소된다. 또한 82年 3月19日 제63차 OPEC總會에서 아

프리카 產油國의 輸出不振으로 인한 財政難과 北海產 油價를 考慮, 油種間 價格差를 1978年 水準인 1.5\$/B로 縮少하기로 決定한 바 있다. 즉 두번의 유종간 differential이 縮少되는 과정에서 基準油種인 사우디產 Arabian-Light는 相對적으로 高價로 評價되게 되었으며, 이는 이란, 리비아,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의 增產과 더불어 最近 사우디의 生産量이 73年 以來 最低水準인 550萬B/D로 급격한 減少를 招來하고 있다.

사우디 原油의 相對的 高價를 잘 나타내는 資料로 <그림-1>과 <表-5>가 있다. <그림-1>은 산유국별 推定 輸出物量을 基準으로 加重 平均 한 原油價格과 사우디 A/L價格間의 상관 關係를 나타낸 그림이다. 즉 지난 2月 이전까

<表-4> 주요 기관별 自由世界 石油需給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B/D)

구분	1980		1981		1982					1983				1985	1990	2000
	DRI	DOE	DRI	DOE	DRI	WEFA	OECD	DOE	TEXACO	DRI	WEFA	OECD	DOE			
(需要)	48.8	49.5	46.2	47.3	45.1	41.7	45.8	45.4	45.5	46.2	43.1	46.9	45.8	48-50	50-56	58-74
先進國	38.3	38.5	35.7	36.1	34.4	30.4	34.5	34.2	34.3	34.8	31.1	34.0	34.4	35-36	34-37	33-43
開發國	11.0	11.0	10.9	11.2	11.2	11.3	11.3	11.2	11.2	11.9	12.0	12.0	11.4	13-14	16-19	25-29
(供給)	48.4	50.3	45.6	46.8	44.3	40.2	44.3	43.9	43.0	46.1	43.2	46.9	46.2	48-50	50-52	49-53
OPEC	27.7	27.8	23.4	23.7	22.1	19.2	20.7	19.9	19.6	23.4	22.2	23.8	21.7	23-26	27-29	24-28
非OPEC	20.8	21.3	22.2	21.9	22.2	21.0	23.6	22.8	22.6	22.7	21.2	23.1	23.4	24	23	25
공산권수입		1.2		1.2				1.2	1.4				1.1	1.0	-	-
在庫變動	0.3	1.8	△0.5	△0.5	△0.8	△1.5	△1.5	△1.5	△1.9	△0.1	0.1	0	0.4			
과부족														-	△0.4	△9-21

- <자료> 1. DRI, International Energy Bulletin, Feb. 1982.  
 2. WEFA, World Economic Outlook, Jul. 1982.  
 3. OECD, Economic Outlook, Jul. 1982.  
 4. DOE, The Outlook for Free World Oil Supply and Demand Through 1983., Sept. 15, 1982.  
 5. TEXACO, Current Petroleum Outlook, Sept. 29, 1982.  
 6. 85년 이후는 IEA의 전망치임. Oct. 12, 1982.

<表-5> 原油價推移 및 展望

年 度 價格	1980	1981	1982 展望			1983 展望		
			DRI	WEFA	OECD	DRI	WEFA	OECD
OPEC平均公示價 (\$/배럴)	30.87	34.50	32.96	33.30	33.90	33.93	33.70	33.70
前年对比(%)	63.5	11.8	-3.69	-3.9	-3.42	2.93	1.3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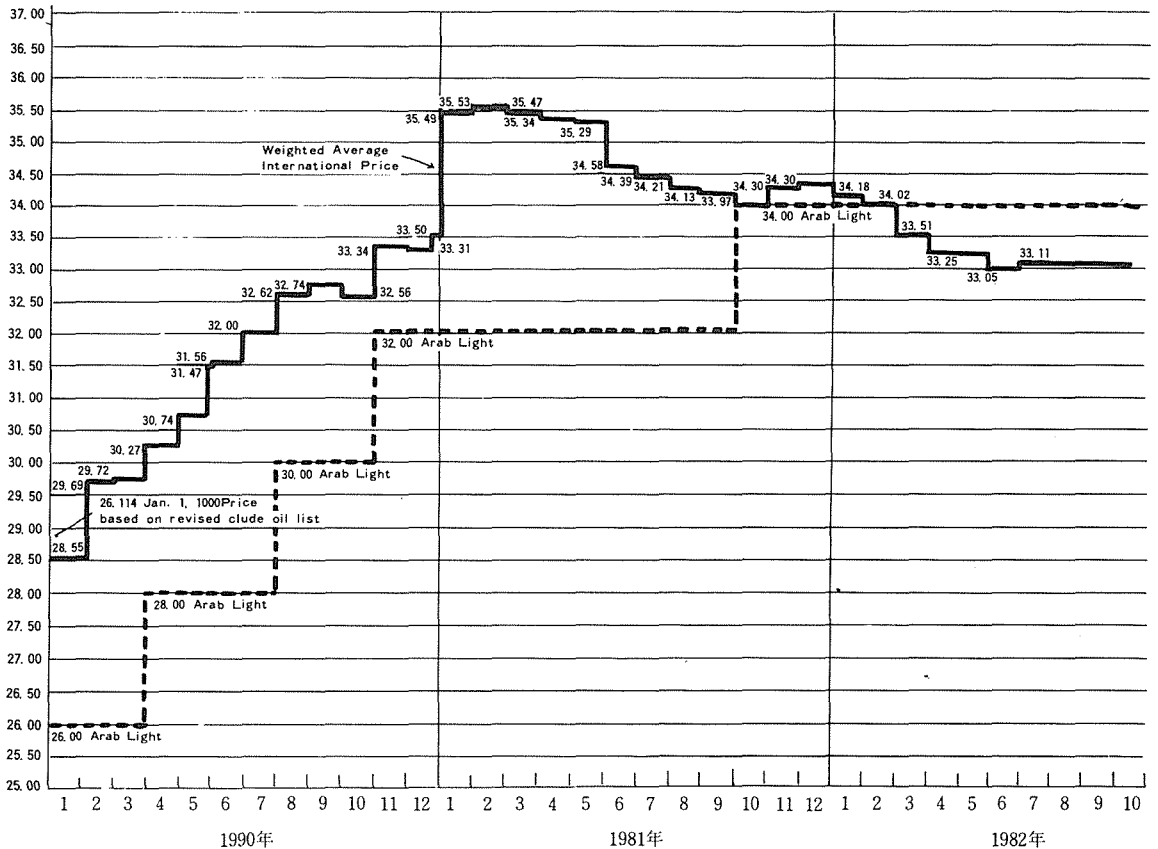
- <資料> DRI, European Bulletin, Jul. 1982.  
 WEFA, World Economic Outlook, Jul. 1982  
 OECD, Economic Outlook, Jul. 1982.

지는 平均價格이 A/L價格보다 높았으나, 3月以後는 오히려 A/L價格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表-5>와 같이 OPEC 회원국의 대표유종을 하나씩 선택, 78年 12月 油價單一化時 價格과 現在價格을 比較하여 보면, 매우 흥미있는 結果를 얻을 수 있다. A/L의 價格을 100으로 하고 각각상대 指數를 구하여 보면, A/L과 가봉, 이라크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가격이 78年 가격보다 指數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으로 사우디 A/L가격이 他原油價格보다 相對的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78年 12月의 油價單一化 價格差를 基本으로 하여 볼 때, 基準油價格 34 \$/B를 維持키 위해서는 아프리카 產油國과의 油種間 differential이 3.5 \$/B線으로 上向調整되어야 하며, 또한 현재 아프리카產 輕質油價

를 上限線으로 하면 A/L이 32 \$/B로 2 \$/B 하락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價格 differential에 대한 아프리카의 輕質原油 產油國과 사우디를 中心으로 한 產油國의 異見 및 이란의 계속되는 油價引下에 依한 輸出物量의 增大, 리비아,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의 生産 淸타 미이행으로 OPEC은 심각한 내분을 보이고 있다.

이런 OPEC內的 事情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최근의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실을 들 수 있다. 첫째로 지난 10月 11日 사우디 油價회사인 Aramco 계열의 Caltex가 日本의 Nippon Oil Company 에 사우디產 A/L의 供給 代金결제기간을 從前의 30日에서 60日로 延長했다는 報道가 原油전문 잡지인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에

(그림-1) 수출평균가격과 A/L과의 비교



재된 사실이다. 이는 즉각 사우디 石油省 및 Caltex의 否認으로 事實이 아님이 確認되었으나, 동보도의 내면에는 가격 differential 引上에 반대하고 있는 아프리카 産油国에 경고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10월 말 오만에서 開催된 걸프만협력 위원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의 石油相 會議에서 OPEC의 合意를 무시하고 있는 一部 産油国, 특히 이란을 맹렬히 비난하고 必要하다면 걸프만 地域 OPEC 會員国만으로 獨自의인 原油輸出 政策을 追求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즉 이는 油價의 引下를 통한 産油量 增大를 意味한다.

이러한 理由에서 오는 12월 7日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에서 개최예정인 제66次 OPEC 총회는 아프리카 産油国의 油價引上이나, 아니면 사우디 등의 油價引下로 他産油国의 경쟁적인 油價引下를 誘發, 價格 混沌狀態에 들어가는나하는 중요한 會議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 만약 66次 總會에서 合意점에 到達치 못하는 경우에는 계절적인 理由로 OPEC 石油需要가 減少되는 82年2/4分期中에 또 한번의 價格 混亂이 今年과 마찬가지로 일어날 可能性은 매우 크다 하겠다.

#### 나. 非 OPEC의 油價弱勢

非 OPEC는 生産量의 增大를 위하여 OPEC 보다 油價를 낮게 책정하고 있으며, 영국과 노르웨이는 北海産 原油價格을 同質의 아프리카 産油国에 비해 2 \$/B 낮은 33.5\$/B로 판매하고 있으며, 非OPEC 最大産油国인 멕시코도 Isthmus 價格을 約 1.5 \$/B 낮은 32.5\$/B로 維持하고 있다.

이러한 非OPEC의 油價 弱勢는 世界原油市場이 安定勢를 보일 83년까지는 持續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다. 現物市場 價格

現物市場 價格은 <그림-2>와 같이 80年 9月 이란·이라크戰의 발발로 80年 11月 最高 41.25 \$/B를 기록하였다가 81년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81年 7月, 79년 이후 처음으로 公式價格을 하회했으며, 81年 10月 油價單一化로 다시 上昇하였다가 82年 中에는 公式價格을 밀돌고 있다. 현재 現物市場 價格은 33~33.5\$/B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으며, 83년에도 世界原油市場이 安定勢를 보일 것이므로 82年과 비슷한 水準을 보일 것으로 展望된다.

### Ⅲ. 原油 導入 政策 方向

(表-6) OPEC 회원국의 油種別 價格 비교

(단위 : B/D)

국 별	代表 油種	API°	유 황 (wt%) 함 유 도	78. 12油價단 일 화 시	現 在 價 格	34\$/B 기준 78년 상대지수 적용시	(35.50) 價格상 한 선 기 준 시
알 제 리	Saharan	44	0.1	14.10(111)	35.5 (104)	37.74	35.50
리 비 아	Brega	40	2.2	13.85(109)	35.4 (104)	37.06	34.90
나이지리아	Bonny Light	37	0.1	14.10(111)	35.5 (104)	37.74	35.50
가 봉	Mandji	30	1.2	12.59(99)	34.0 (100)	33.66	31.70
사 우 디	A-L	34	1.7	12.7038(100)	34.0 (100)	34.00	32.00
쿠웨이트	Kuwait	31	2.5	12.27(97)	32.3 (95)	32.98	30.90
이 란	I-L	34	1.4	12.81(101)	31.2 (92)	34.34	32.25
이 라 크	Kirkuk	36	2.0	12.88(101)	34.18(101)	34.34	32.43
U. A. E	Murban	39	0.8	13.26(104)	34.56(102)	35.36	33.39
카 타 르	Dukhan	41	1.2	13.19(104)	34.49(101)	35.36	33.20
인도네시아	Minas	34	0.1	13.55(107)	35.00(103)	36.38	34.11
베네수엘라	Oficina	34	0.8	13.99(110)	37.06(109)	37.40	35.22
에 파 도 르	Oriente	30	0.9	12.35(97)	32.5 (96)	33.05	3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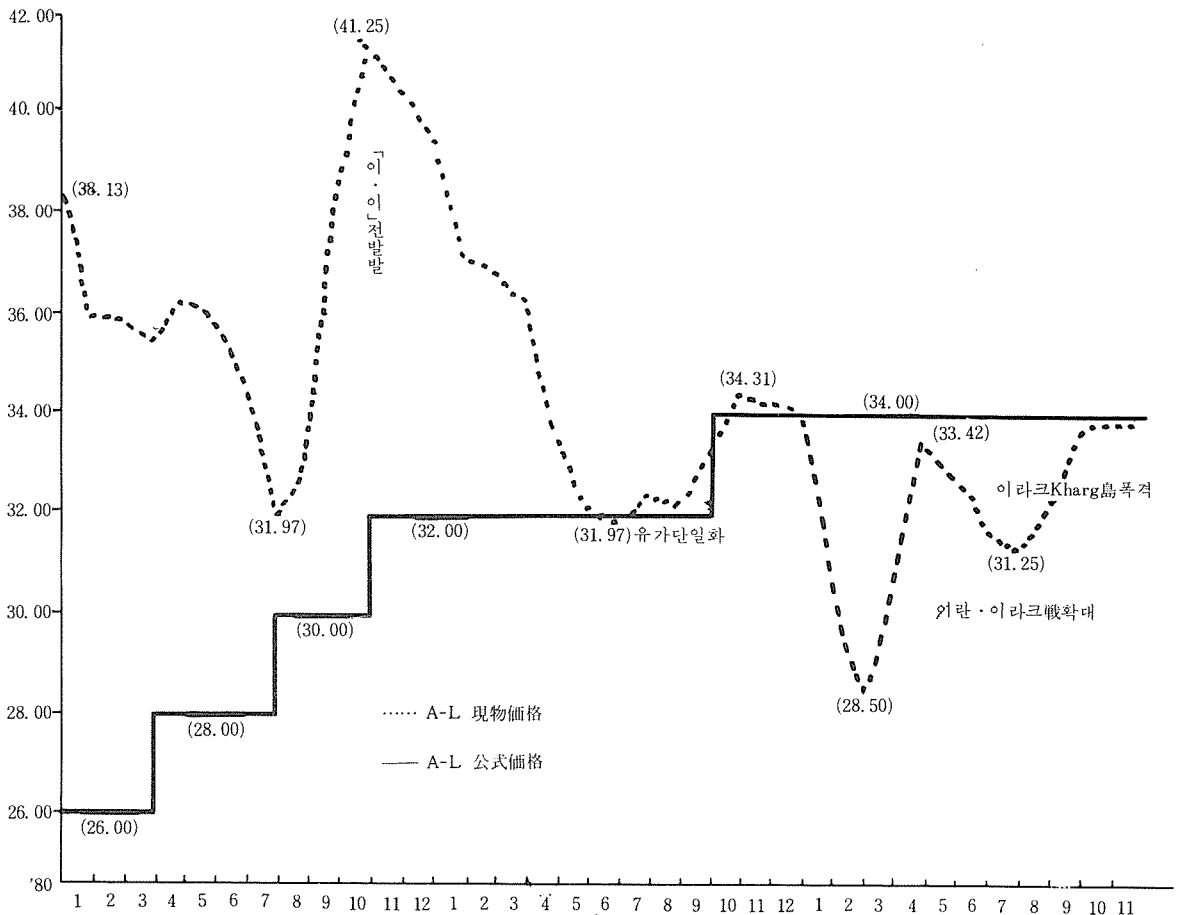
石油은 70年代 低價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高度成長의 밑거름이 되었으나, 總에너지중 石油依存度를 深化시키고 産業의 石油體質化를 促進시켜 1·2次 오일쇼크로 인한 油價의 急騰으로 經濟成長率의 둔화, 높은物價 上昇으로 企業의 國際競爭力을 弱화시키고 石油導入費增加로 國際收支 惡化의 主要因으로 作用, 오히려 80年代 經濟成長의 制約要因으로 擡頭하게 되었다 (表-7 參照).

(表-7) 우리나라에서의 原油의 比重

구 분		64	70	80	81
經濟成長率(%)		9.6	7.6	△ 5.7	7.1
에너지중 石油依存度(%) (별량기준)		9.6	42.7	61.3	58.4
原油 도입 물량(천배럴)		5,835	69,150	182,861	182,816
原油 도입 단가(\$/B)		1.62	1.72	29.7	34.12
原油輸入代錢	금 액 (억달러C&F 기준)	0.012	0.12	56.54	65.04
	G N P 의	0.4%	1.5%	9.9%	10.3%
	총 수 입 액 의	3.4	6.6	25.4	27
	총 수 출 액 의	10.5	13.5	32.3	31.1
무 역 수 지 (억달러)		△0.25	0.88	△44	△32

이러한 國民經濟에서의 石油의 比重(國內石油製品原價中 原油費가 차지하는 비율)이 87.7% 인점을 감안하고 또한 所要原油의 全量을 海

(그림-2) A-L 油現物價格 추이



外에서의 輸入에 依存해야 하는 우리 나라로서는 必要原油를 的期에 低廉한 價格으로 長期安定的으로 確保하여 導入해야 하는 것이 基本命題이다.

이에 따라 政府는 國際石油市場의 變化에 反應, 低價原油의 導入促進을 위하여 82年 3月 11日, 2次 오일쇼크 이후 국제원유가가 多元化되어 79年 7月 10日 부터 安定基金 制度를 導入 운용했던 原油價平準化 制度를 廢止하고, 原油 導入에 경쟁 原油를 導入한 바 있으며, 앞으로 油價自律化를 漸進的으로 推進할 計劃으로 있으므로 原油의 導入에도 가급적 政府의 直接介人을 줄이고, 精油社 스스로 必要原油를 安定的으로 確保해 나가도록 하고, 政府는 精油社의 原油 導入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行政的으로 지원해 나갈 方針이다.

83年에도 今年과 마찬가지로 世界原油市場이 安定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다음과 같은 施策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① 需給의 安定化를 위하여 精油社로 하여금 가급적 장기계약에 의한 도입을 유도하되 必要한 경우에는 一定범위내에서 저렴한 現物市場의 活用을 許容해 나가야겠으며,

② 中東지역의 不安要因을 감안, 原油導入先 多邊化를 경제성을 고려, 점진적으로 계속 추진하며 現在 原油導入先의 多邊化時 支援되고 있는 추가輸送費, 追加金融費, 안정기금의 징수면제는 가능한한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

③ 83年에도 世界原油市場이 안정되어 Buyer's Market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종래 Seller's Market에서 체결된 불리한 導入條件의 改善을 계속 推進해 나갈 계획이다.

④ 世界原油市場의 공급과잉으로 産油國과의 교류가 뜸한 감이 없지 않으나 이러한 공급과잉 때 더욱더 産油國과의 유대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産油國과의 多角的인 經濟協力 및 交流를 심화하여 原油導入國과의 유대가 실질적으로 增大, 強化되도록 해야 겠다.

⑤ 現在 民間商社 導入原油에 대하여 實需要者인 精油社와 導入會社間에 利害관계가 상충,

合意가 잘 되지 않는 面이 있으므로 양자간에 圓만한 合意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

⑥ 마지막으로 國際 原油情報의 수집, 교환, 分析에 대한 國內의 Network을 마련, 석유정보 체제를 구축,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IV. 結論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世界原油市場은 매우 독특한 特性과 性格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世界原油市場은 供給면에서는 1983年까지 基調的으로 供給過剩을 보일것으로 전망된다. 現在 世界原油市場의 쟁점은 유종간 differential에 대한 各産油國의 이해를 OPEC이 어떻게 대처, 결정해 나갈것인가가 주목된다. 이런 면에서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開催될 제 6次 OPEC 총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만약 유종간 differential에 대한 合意에 이르지 못하면 "1920년 석유가격은 65\$/B에서 거의 5배인 5\$/B로 引上, 바로 다음해에는 1.7\$/B로, 1930年代 世界公황으로 다시 65¢/B로 환언"된 바와 같은 현상이 생겨날 가능성은 커진다 하겠다.

최근 石油需給의 完화로 石油에 대한 장기전망이 대체로 낙관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中東의 政治的·軍事的 不安定性에 依한 석유공급 飢乏 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전망이 석유소비 절약 및 代替에너지 開發努力이 앞으로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최근 이같은 경향이 약화되고 있는 점도 있어 不安要因은 여전히 尙存하고 있다는 것을 銘心하여야 할 것이다.

最少限 來年까지는 世界석유시장이 安定勢를 보일 것으로 展望되므로 우리 나라로서는 需給 安定化를 기할 적기의 기회이므로 장기계약에 의한 원유우선도입, 원유도입선다변화, 不利한 導入條件의 改善, 原油情報體制의 確立等을 推進해 나갈 계획이다. \*